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참여 공동체 최종 선정 어업유형별 2개소씩 총 8개 공동체 경합

2017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대회에 참여할 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 마을어업 분야에서 옹도(충남 서산)공동체와 안포(전남 여수)공동체, 어선어업 분야에서 거제새우조망(경남 거제)과 비응도(전북 군산)공동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양식복합어업에는 삼시도(충남 보령)과 송호(전남 해남)공동체, 내수면어업에는 원주섬강어업(강원 원주)과 연천내수면(경기 연천)공동체가 선정돼 4개 분야, 8개 공동체가 경

합을 벌이게 됐다.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해수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점수와 2016년 공동체 평가점수를 반영해 본선 진출공동체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선정대회에서는 어업유형별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우수, 우수공동체를 선정,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수산업회,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조정

거제·통영 새우조망어업과 통영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 간 조업분쟁 해소



한국수산업회 자율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어구 피해 최소화 및 허가된 어구어업을 준수하기로 협약하고, 분쟁 당사자인 거제통영 새우조망 및 통영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 위원장이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분쟁 당사자 간 협의 모습.



한국수산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규)는 최근 거제·통영 새우조망어업과 통영 연안복합(문어단지)어업 간 조업분쟁을 해소했다. 이 분쟁은 거제·통영 새우조망과 통영 연안복합어업 간 조업구역 중복으로 발생한 분쟁으로, 지난 3월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신규 분쟁조정 과제로 선정한 뒤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조정을 벌인

결과 어구 피해 최소화 및 허가된 어구어업을 준수하기로 협약함으로써 해묵은 조업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분쟁 당사자인 거제 새우조망어업공동체(위원장 서경수), 통영 새우조망어업공동체(위원장 김종찬), 통영 연안복합어업공동체(위원장 심석태)는 지난 9월 25일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입회하에 분쟁조정 협약서에 서명했다.

2017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공동체 신청접수

해양수산부는 2017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해 오는 11월 중 서류접수를 받아 현지 확인 점검과정을 거쳐 본 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공동체는 2017년 공동체 평가위원회가 확정된 선진공동체 중 선진등급으로 지원받은 실적 이 없는 공동체이다.

신청할 공동체는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고 성공모델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사업을 사업계획서로 작성, 지자체를 통해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면 된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 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 교육

태안 마금공동체, 화성 백미리공동체 방문 현장 교육



태안 마금공동체 회원들의 현장 교육 모습.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사례전수 현장 교육이 지난 10월 16~17일 경기도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열

렸다. 이날 충남 태안 마금공동체 회원 30여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모범공동체인 백미리공동체를 방문, 공동체 활동상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날 교육 진행을 담당할 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어업인의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답사 10월 23~27일, 대만에서 실시

한국수산업회는 10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타이페이, 지룽 등)의 수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2017년 제3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대만 연수에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구성원 11명을 비롯, 해수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대만의 수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어업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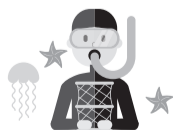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강원북은대계통발선주협회공동체 **붉은대계 직매장 준공**



강원북은대계통발선주협회공동체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아 속초시 청호동에 붉은대계 직매장을 마련, 소득증대를 꾀하게 됐다.

붉은대계 유통판매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붉은대계 직매장' 준공식이 9월 29일 속초시 청호동에 마련됐다. 총 15억원이 투입된 붉은대계 직매장은 연면적 899㎡ 규모로, 판매장 및 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 직매장은 강원북은대계통발선주협회 자율관리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6월 공사에 착공,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어업인 현장맞춤교육 및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강원도 환동해본부, 원주와 홍천내수면어업계 요청으로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어업인 현장맞춤교육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을 9월 29일 원주 소재 돼지문화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맞춤교육은 수산전문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함께, 원주와 홍천의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 중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소득창출 방안 및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어촌생활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각각 교육을 맡았다. 이번 교육은 어촌현장을 찾아 어업인 수요에 맞춘 주문형 교육의 일환으로 원주와 홍천내수면어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어촌관광 활성화, 미래 어촌생활 등 앞으로 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 통영시 한산도권 연안바다목장 등 5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물고기 종자 방류사업 확대 등 수산자원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또는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통영 비진권 해역에는 2012년부

터 지난해까지 50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 546기를 설치하고 자연석 5,150m³를 투하하는 등 모두 84ha에 걸쳐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마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됐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 면허허가받은 어업 행위에 대해 체장 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규정이 강화되고 나머지 조업행위는 금지된다.

동해어업관리단, 바닷속 쓰레기와 한판 승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월 12~13일 자매결연을 맺은 어촌마을 지원을 위해 경남 통영 죽도와 거제 쌍근마을에서 유해생물인 불가사리 및 성게구제와 수중 침적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등 수중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전복 종패의 성육을 확인하는 등 일손돕기 활동도 벌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의 스킨스쿠버 봉사동호회는 지난 2011년부터 도움을 요청해 온 낙도나 오지어촌마을을 방문해 어장청소 및 수중 정화활동을 통해 그동안 6톤가량의 수중쓰레기와 유해생물을 구제함으로써 마을어장의 조업환경 개선과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남해에서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개최

공동체 어업인 등 3,500여명 참여 ... 공동체 정보 교류 및 화합 도모

제8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가 10월 20일 남해군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도내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을 비롯해 박영일 군수, 박동식 경남도의회의장,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등 관계자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인 현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인사말, 유공자 표창,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마음대회는 도내 어업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져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자리로, 이번 대회는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서, 바다의 미래는 경남에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공헌한 사천시 자율관리공동체 송한홍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자율관리어업인 40여명에게 유관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경남도 한마음대회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도 단위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경남도는 지난 2007년 남해군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돼 오고 있다. 경남도 자율관리공동체는 지난

2001년 9개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 236개 1만1,000여명의 회원들이 자원관리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박영일 군수는 환영사에서 "식량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가꾸어 나가는 어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남해군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0일 남해군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행사 모습. 경남도 한마음대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도 단위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다.

제8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포상자 명단

- ▣ 경상남도지사 표창 ▽사천시 신수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송한홍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고윤경 ▽창원시청 수산과 하재열 ▣ 경남도의회의장 표창 ▽거제시 외솔리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채권식 ▽통영시 영운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김경수 ▽하동군 숭실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김해중 ▽사천시 조도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김성성 ▽고성군 삼산연안연승수산물관리공동체 윤영준 ▽남해군 은점북한수산물관리공동체 총무 이성룡 ▽창원시 흥합양식수산물관리공동체 총무 문영경 ▣ 국회의원 표창 ▽통영시 감성동지렁이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박석규 ▽통영시 연대수산물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이학조 ▽고성군 하이연안통발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최명규 ▽고성군 하일연안통발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조경식 ▽남해군 정치망수산물관리공동체 이돈선 ▽하동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 문인수 ▽사천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합회 권한천 ▣ 남해군수 표창 ▽냉천어촌계복합수산물관리공동체 강명완 ▽이어어촌계수산물관리공동체 김복래 ▽대벽어촌계수산물관리공동체 박문일 ▽남해멸치어촌계수산물관리공동체 박상철 ▽순도 죽방렴수산물관리공동체 임옥택 ▣ 수협중앙회장 표창 ▽남해군 노구자율관리공동체 총무 이춘갑 ▽통영시 동동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조광현 ▽거제시 동호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진재근 ▣ 한국수산회장 표창 ▽거제시 도장포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최석상 ▽통영시 연이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장동주 ▽남해군 강진만어선어업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이연철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표창 ▽고성군 가리비양식수산물관리공동체 김태근 ▽근해지망수산물관리공동체 박남열 ▽거제시 다대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신중수 ▽창원시 진해소형어선수산물관리공동체 배미자 ▽남해군 연안연승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박호수 ▽사천시 산분령수산물관리공동체 탁상호 ▽하동군 수산업경영인공동체 문미숙 ▣ 통영해양경찰서 표창 ▽창원시 진해연안통발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김철기 ▽고성군 미룡수산물관리공동체 회원 김명민 ▽거제시 잠수기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장영욱 ▽통영시 연안통발수산물관리공동체 부위원장 이상로 ▽남해군 연안통발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구본학 ▽하동군 숭실수산물관리공동체 회원 서효정 ▽사천시 비토수산물관리공동체 위원장 김진권

특별기고

“어촌 공공일자리로 자율관리 공동체 활력 되찾아야”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어장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1,159개 공동체에서 7만여 명의 어업인(전체 어가인구의 약 55%)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 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308개소, 참여 어업인 수는 2만여명으로 전국 최다 수준이며 어장 휴어기, 수산종자 방류, 바다목장 조성, 해양쓰레기 청소, 자재 어획량 축소 등을 실천해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4대 주요 활동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 어업자원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어장관리’, 지역간·어업간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질서유지’, 비용절감·수급조절 등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개선’이다.

또한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의 5대 성공유형을 분석해 보면 공동체 리더의 의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정부 및 유관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지원’, 공동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 생산유통·환경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관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심을 함양한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자율관리어업의 직접적인 효과 즉 수산자원회복, 꾸준한 환경개선 등으로 관광 증가, 어업인 소득향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연간 1천 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율관리어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미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수산분야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미래 10대 유망사업으로 수산양식업을 꼽았다. 그는 바다 양식산업이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



왕세호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원도지원장

쇠라고 진단했고, 또한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수산양식업이 축산업의 고비용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제 자율관리어업도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우선하여 공공일자리 창출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서 어업인 주도 수산자원 관리체계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붐 조성 및 어촌 활력찾기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도우미는 전남 공동체를 지정분야 어촌공동체의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어업인 선진 교육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선정된 도우미는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수산분야 경력자가 대다수로 월 급여

는 200만원 수준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사업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자율관리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어촌 가꾸기와 자원조성 등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분야도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으로 새로운 약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디지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세상’을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들과 우리 수산인들이 앞장서 열어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내일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Tomorrow is built today’라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겠다.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 제정된다’

해수부, 가입 문턱 낮추고 경쟁력 높일 “지원센터” 운영 추진

어촌계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관리 센터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어촌계 가입의 선결조건이었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10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어촌계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협법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최근에는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도 말 기준 전국의 어촌계는 2029개가 분포돼 있다.

수산물수출 효자 품목 ‘김’ 4억불 수출 돌파

3분기 수출 17억4천만불 ... 전년비 10.9% 증가

우리 수산물수출이 효자 품목인 ‘김’을 앞세워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수출은 올해 3분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50.3% 증가한 4억1,000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한 김을 필두로 브레이크 없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3분기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15억6,000만불 보다 약 10.9% 증가한 17억4,000만불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3분기 수산물수출 실적은 6억2,000만불로 전년 동기 5억7,000만불 대비 8.9% 증가하며 2016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상승했다. 9월 월간 실적은 2억불로 전년 동월 1억9,000만불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물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실적이 2억불을 돌파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베트남·프랑스·대만·홍콩·이탈리아·스페인 등 10대 수출국 중 홍콩(10.0%↓)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출이 늘어났으며 태국, 대만, 스페인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으로는 김(1억불, 56.2%↑)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전통적인 주력 품목인 참치(1억6,000만불, 6.5%↑)도 늘어났다.

또한 일본 내 굴 공급 부족으로 대일본 굴 수출이 급증(2,000만불, 23.6%↑)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은 총 5억9,000만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중국으로는 김(7,000만불, 37.4%↑)과 대구(3,000만불, 78.1%↑)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오징어(2,000만불, 24.2%↓)와 어묵(2,000만불, 13.8%↓) 수출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0.2% 가량 증가한 2억9,000만불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참치·김·오징어·굴·넙치·이빨고기·계·게·살·전복·대구 10대 수출 품목중 오징어와 전복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특히 김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수출 가격도 상승하면서 올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50.3% 증가한 4억1,000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웅진군 관내 5개 어촌계 어장 '스킨스쿠버 시험어업' 추진

웅진군 관내 덕적, 소야,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 등 5개 어촌계 어장에서 전복, 해삼, 키조개 등의 채취방법 개선을 위한 '스킨스쿠버 시험어업'이 추진된다.

웅진군에 따르면 그동안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키조개 채취를 위해서는 고가의 잠수기(일명 머구리) 허가허가를 어장관리선으로 임차하거나, 별도의 산소 공급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어획물을 채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현실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지속 요구되어 왔었다.

웅진군과 어업인들은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스킨스쿠버는 수상레저 목적이 외 수산물 포획채취가 불법이나 면

허받은 마을어장에 한해 스킨스쿠버 방식의 시험어업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웅진군 덕적면, 자월면 해역의 5개 어촌계(덕적, 소야, 대이작, 소이작, 승봉) 마을어장(14건/144.5ha)에 대해 2018년 8월 말까지 시험어업 대상어장으로 승인했다.

웅진군에서는 시험어업 착수에 앞서 유관기관(서해수산연구소, 웅진수협)과 함께 해당 어촌계장 및 스킨스쿠버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6일 시험어업 준수사항, 자원조사 및 어획일지 작성방법, 안전관리 방안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어업 착수에 들어갔다.

통영에서 바다장어꽃게 소비촉진 행사



근해통발수협 주관으로 열린 바다장어꽃게 소비촉진 행사 모습.

근해통발수협(조합장 김봉근)은 지난 10월 21일 통영 케이블카 하부역사 특설 무대에서 '2017 장어꽃게 소비촉진 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산물의 꽃 바닷장어와 꽃게라는 주제 하에 시식회와 요리토크, 초청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규 한국수산업협동조합 등 수산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어업인,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근해통발수협은 장어와 꽃게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리를 선보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 해양수산신지식인협회, 11월 14일 군산에서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회장 문승국)은 오는 11월 14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해양수산신지식인, 수산업경영인,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수산계 고교생 및 대학생 등 500

여명이 참석한다.

문승국 중앙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속에 한국 수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공동체 탐방 / 충남 서산 중왕 자율관리공동체

'가로림 만 갯벌에서 감태·낙지 등으로 고소득 일궈'



박현규 서산 중왕공동체 위원장



지난 10월 13~15일 3일간 열린 제4회 서산빨낙지 축제모습. 이 축제는 중왕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제11회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상과 함께 사업비 6,000만원을 받고 회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중왕공동체는 2004년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상과 표창을 수상했다.



낙지 자원증강을 위해 마련한 낙지 종묘발생장.



갯벌에서 채취한 감태를 도시락형 조미감태로 상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충남 서산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를 테마로 한 '제4회 서산 빨낙지축제'가 지난 10월 13~15일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중리포구에서 열렸다. 이 축제는 지난해 3년 연속 해양수산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서산의 대표적인 가을맞이 축제다.

이 축제로, 중왕공동체 박현규(49) 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산 중왕공동체는 2004년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서산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에서 열린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강릉열차마을투어, 감태초코릿만들기, 쪽대그물체험, 개막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천혜의 갯벌로 꼽히는 가로림 만에 위치한 중왕공동체는 갯벌낙지잡이 외에도 갯벌에서 감태를 채취, 전국 최초로 도시락형 조미감태를 상품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조미감태는 김 가공공장을 통해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조만간 자율관리 육성사업비에 자체자금을 더해, 세척시설과 건조기, 분쇄기, 냉풍건조기를 갖춘 감태가공공장을 마련, 일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공장이 마련되면 연간 3~4억원 수준인 감태 판매소득이 지금보다 3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왕공동체는 자체 상품

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해품', '중왕리' 등 고유브랜드까지 개발, 상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생산과 유통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감태와 함께 주소득원인 낙지의 자원증강을 위해 지난해 서해수산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낙지 종묘발생장을 조성, 인근 낙지 포획량의 20% 증가 효과를 얻기도 했다. 낙지 종묘발생장은 산란이 임박한 암컷 낙지를 일정 구역에 방류하여 자연증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낙지 자원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지원이 필요한 자원증강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공동체 진입장벽을 완화해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6명의 신규 회원을 받아들인 중왕공동체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출자를 바탕으로 2014년 조직한 어촌특구화 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왕공동체의 가구당 어업평균소득은 3,600만원 수준으로, 머지않아 큰 폭의 소득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박현규 중왕공동체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더 뿐 아니라 공동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